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

-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직원 국외연수 -
**식문화 및 전통문화유산 활용 관광자원화
방안 연수 결과보고**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목 차

I. 연 수 개 요	1
II-1. 연수 국가 연구 - 오스트리아	10
II-2. 연수 국가 연구 - 체코	13
II-3. 연수 국가 연구 - 헝가리	17
III. 방 문 기 관	21
① 오스트리아 쉐nbrun 궁전	21
② 오스트리아 벨베데레 궁전	22
③ 립스오브 비엔나	23
④ 패밀리 켈르렐트사와 카페 란트만	25
⑤ 오스트리아 의회	27
⑥ 오스트리아 유네스코 위원회	28
⑦ 할슈타트	32
⑧ 게트라이트가세	35
⑨ 체스키 크롬로프	39
⑩ 프라하 관광청	41
⑪ 뉴욕카페 부다페스트	43
⑫ 그레이트 마켓홀	45

□ 연수동기 및 배경

- 동유럽의 경우 19세기 중세시대 건축공간과 당시의 식문화가 고스란히 현대까지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가지며, 그 주요 요인으로 도시계획부터 건축물 신축, 인테리어는 물론 간판, 가로등 등 거리구조물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지방정부가 개입하여 옛 경관을 유지하도록 하고, 유네스코 지정 추진 등으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과거의 지역유산을 유지·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있었음.
- 또한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즉 지역 고유문화를 존중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정체성 및 자부심 등이 현재의 동유럽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었으며, 이는 과거의 화려하고 풍부했던 역사를 잊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 지역의 특색이 되고 관광자원이 되었음.
- 특히 동유럽의 식문화의 경우, 전북지역 역시 국내 여러 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한국의 고대,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문화에 대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이를 접목하여 관광자원화하고 관광상품으로 육성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한옥, 근대건축물 등을 활용하여 고유의 독특한 공간을 만들어 내고 판소리, 미디어아트 등 지역의 역사문화콘텐츠가 함께 어우러져 말 그대로 식'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음식문화도시를 조성, 제2의 전북관광 활성화를 위해 동유럽 벤치마킹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관광사업 활성화·디지털 대전환 정책이 필요함

□ 연수 개요

○ 연수목적

- 동유럽 고유의 식문화를 활용한 관광상품화(지역의 카페·음식점의 고유성 유지, 홍보마케팅 전략 등)한 사례를 비교 견학
- 전통 건축물 등의 경관 보전 정책 및 문화유산 보존 관리 활용한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

⇒ 전라북도만의 고유의 식문화를 개발하고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 관리를 통해 관광자원화하여 국내외 관광객유치 및 관광활성화

○ 기 간 : 2023. 04. 20(목) ~ 04. 28(금) / 7박 9일

○ 연 수 국 : 오스트리아(빈, 할슈타트, 잘츠부르크), 체코(체스키크롬로프, 프라하), 헝가리(부다페스트)

○ 방문기관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유네스코 위원회, 패밀리 큐르펠트사
- (체코) 프라하 관광청, 체스키크롬로프
- (헝가리) 뉴욕카페, 그레이트 마케홀 상인회

□ 연수내용

1) 동유럽 식문화산업 벤치마킹을 통한 신산업 육성 및 관광정책 적용

- 오스트리아 빈 커피하우스 방문: 30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커피하우스(Kaffeehaus)는 세계적으 유례없는 명소임. 빈에는 19세기 말의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한 커피하우스가 150여 곳에 달하고 2011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음. 비엔나 사람들은 커피하우스를 '도시의 공공 거실(The City's Public Living Rooms)'이라 표현.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주요 관광 코스로 "카페투어 관광상품"으로 활용되고 있음.
- 오스트리아 패밀리 퀘르펠트社(Family Querfeld) 방문: 3대에 걸쳐 카페 뮤지엄, 카페 란트만 등 비엔나의 전통있는 커피하우스 및 레스토랑 11개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35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현재의 비엔나 커피하우스 문화의 전통을 창조, 계승하고 있음
- 헝가리 부타페스트 뉴욕카페 방문: 뉴욕카페는 1894년 미국에 본사를 둔 뉴욕보험회사 헝가리 지사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한 건물로 당시 부타페스트에만 500개가 넘는 커피하우스가 있었고, 건물 1층에 뉴욕카페가 자리함. 다양한 조각품과 샹들리에, 원형 기둥, 바로크양식의 아치 등 최고급 자재를 이용한 화려한 내외부장식이 특징으로 현재까지도 당시의 모습을 보전하고 있음.
- 비엔나 커피하우스는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주요 관광코스이자 카페에서 판매하는 멜랑주(일명 비엔나커피)와 아인슈페너, 마리아테레사 등 비엔나 고유 커피와 전통 디저트를 맛보는 "카페투어 관광상품"으로 활용되고 있어 전북지역의 커피, 전통차, 과자 등의 지역 고유의 음료와 디저트를 활용, 지역 문화와 건축물 등 특별한 공간과 결합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전북의 특징적인 관광상품으로 활용 가능

2) 전통 건축물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통해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방안 모색

-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게트라이드 가세 방문: 모차르트의 고향으로 세계 최대 여행가이드 론리플래닛이 발표한 2020년 꼭 방문해야 할 도시 1위로 선정된 바 있음. 연간 약 4,500개의 크고 작은 음악제와 페스티벌이 개최되는 문화도시이며 다양한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로 유명하며 특히,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촬영지인 미라벨 정원(바로크 양식의 대리석 건물과 조각상 사이로 화려한 꽃들이 만발한 조화로운 풍경)으로 더욱 유명함. 모차르트가 태어나 17세까지 살았던 생가를 비롯해 생가 근처에 모차르트 동상이 세워진 모차르트 광장 등이 있는 게트라이드 가세는 좁고 기다란 상점가로 개성 있는 간판으로 가득하며, 중세시대 문맹자가 많아 글을 몰라도 상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림이나 조각으로 상점을 나타내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 게트라이드 가세는 이런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이거리의 간판들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예술작품이라 할 만함. 현재까지도 국가의 허가 없이 간판을 함부로 설치하거나 철거할 수 없게 하여 유지관리 중임.
- 오스트리아 할슈타트 방문: 오스트리아 잘츠카머구트 지방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경승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할슈타트-다흐슈타인 잘츠카머구트 문화경관)되었고 마을 꼭대기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출토된 철기시대 유물들로 유럽의 초기 철기문화를 일컫는 “할슈타트 문화”가 여기에서 유래되었음. 전 세계 최초의 소금광산으로 유명하며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풍요로움을 바탕으로 철기문화가 발달함. 현재는 관광산업이 주를 이루며 아름다운 호수와 산을 깎아서 집을 지어 만들어진 만들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
- 유명인 생가 보존 및 인근에 관련 콘텐츠를 활용한 먹거리를 개

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점 등 역사와 전통, 고유성을 간직하고 있는 전북지역에 게트라이드 가세의 건축물, 간판, 스트리트퍼니처 등을 활용한 “고유경관의 유지·관리·활용방안”을 벤치마킹하여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체코 체스키크룸로프 방문: 크룸로프 성을 포함한 뛰어난 건축물과 역사 문화재로 유명하며, 구시가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1992년 등록)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양식 등 다양한 건축양식을 볼 수 있음. 구시가지를 휘감아 흘러가는 검은색의 블타바강이 이색적임. 뿐만 아니라 에곤설레의 작품, 클림트, 피카소 등의 예술작품을 볼 수 있는 문화센터가 있는 스포르토스티 광장, 루돌프 2세 아들과 이발사 딸의 슬픈 러브 스토리가 담겨있는 이발사의 다리(레지브니키교) 등이 있음

○ 헝가리(부다페스트) 그레이트 마켓홀 방문: 1977년에 국가기념물로 지정된 이 건물은 헝가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벽돌 건축물 중 하나로 손꼽히는 그레이트 마켓 홀은 1897년에 지어진 부다페스트에 남아있는 가장 큰 재래시장

- 과거 건축물을 완전히 허물지 않고 원형을 유지한 채 현재의 기능을 더해 독특한 지역문화와 지역분위기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특색을 만들어 내 이것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사례로, 전북지역의 오래된 건축물을 원형상태로 유지보수하여 현재의 수요에 맞는 기능을 입힌다면 다른 지역에 없는 전북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지정 및 관리실태 견학 및 지역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모색

○ 오스트리아 유네스코 위원회 방문: 세계유산목록 등재 12건, 잠정목록 10건 등 다양한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발굴, 관리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유네스코 부의장국으로 활동 중인 오스트리아

유네스코 위원회의 다양한 활동 현황 청취

- 오스트리아 유네스코 지정·관리 및 발굴 정책 관련, 오스트리아 전통건축물과 경관지구 등에 대한 관리·활용 현황, 오스트리아 식문화 등 전통문화유산의 전통유지관리 정책
- 프라하 관광청 방문: 프라하시가 설립한 주식회사로 프라하 관광 안내 홈페이지 운영, 관광안내소 운영, 가이드 및 투어 제공, 프라하 비저터 패스 발급운영, 관광객 통계 및 분석 등 다양한 관광업무 공식전담운영기관
- 지역전통음식 및 음식점 홍보 안내 방식(레스토랑별 별점평가방식 등), 프라하지역 음식관광 및 식문화 관광객 현황 등

□ 기대효과

- (식문화산업 육성) 동유럽 3개국의 식문화 활용 관련 산업 육성 및 관광상품화 벤치마킹으로 전라북도 식문화산업 관련 신산업 육성 및 관광정책 적용
- (문화유산 보존) 전라북도 전통 건축물들을 문화유산으로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이를 관광자원화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지속적인 보존 및 동시에 지역 경제활성화 기대
- (세계문화유산 발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지정 및 관리실태를 견학하고, 전북 도내 시군별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관리·활용방안 모색을 통한 세계문화유산 발굴 및 등재

□ 연수자 명단(개인별 업무내용)

□ 총 인원 : 10명 (총무 3, 의사 1, 입법 1, 운영 1, 예결 1, 상임위 3)

연번	부서명	직 급	성 명	비 고
1	총무담당관	행정4급	곽 효 승	연수단장
2	”	행정5급	한 동 철	
3	”	행정6급(임기제)	은 수 정	
4	의사담당관	행정5급	최 율 하	
5	입법정책담당관	사서6급	양 지 숙	
6	운영수석전문위원	행정6급	김 영 수	
7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행정5급	임 선 영	
8	농산업경제전문위원	행정6급(임기제)	형 영 주	
9	문화건설안전전문위원	행정6급(임기제)	변 혜 진	
10	교육전문위원	행정6급(임기제)	소 민 섭	
소계	10명	남5, 여5		

□ 연수일정

일 자	지역	시간	세부일정
1일차 (4.20)	전 주	0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 출발 · 인천국제공항 출발 · 부다페스트 BUD 도착 · 성이스트반 대성당 방문 - 고건축물 보전관리 및 관광활용 사례 답사 · 헝가리 전통음식 체험
	인 천	08:15	
	헝가리	13:50	
	부다페스트	15:00	
2일차 (4.21)	부다페스트	0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동 · 비엔나 전통음식 체험, 케른트너 거리, 벨베데레궁 등 방문 · <u>오스트리아 유네스코 위원회 방문</u>
	오스트리아 빈	12:00	
3일차 (4.22)	빈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엔나 커피하우스 문화체험 · <u>패밀리 퀘르펠트社 방문</u> · 잘츠부르크크로로 이동
		15:00	
4일차 (4.23)	할슈타트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슈타트 마을 방문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시 보전관리사례 · 게트라이드 가세 방문 - 전통경관 및 고건축 활용 관광마케팅 사례
	잘츠부르크	15:00	
5일차 (4.24)	잘츠부르크 체코 (체스키크롬 로프)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코 체스키크롬로프로 이동 · 체코 전통음식 체험 - 중세도시 라트란 거리 방문 및 음식관광체험 · 프라하로 이동
		12:00	
		16:00	
6일차 (4.25)	프라하	10:00	· <u>프라하 관광청 방문</u>
7일차 (4.26)	프라하 헝가리 (부다페스트)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이동 · 뉴욕 카페 부다페스트 방문 - 고건축활용 카페 관광상품화 사례 답사
		15:00	
8일차 (4.27)	부다페스트	15:55	· 부다페스트 BUD 출발
9일차 (4.28)	인 천	0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국제공항 도착 · 전주 도착
	전 주	15:00	

□ 방문국가 개황

<오스트리아>

□ 요약

- 언어 : 독일어 / 면적 : 약 838만ha(세계 116위)
- 수도 : 빈 / 인구 : 약 911만명(인구밀도 km² 당 108.6명) / 화폐단위 : 유로
- GDP : 4,477억 유로 / 1인당 GDP 49,593 유로
- 종교 : 가톨릭 55.2%, 동방정교회 4.9%, 개신교 3.8%, 이슬람교 8.3%
- 인물 : 지그문트 프로이트, 콘라트 로렌츠, 모차르트, 구스타프 클림트
- 특징 : 오스트리아는 독일의 남동쪽, 정확하게는 독일 바이에른주의 동남쪽에 위치한 나라로 중부유럽에 있는 국가이자 서유럽에도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국가로 과거 신성로마제국 합스부르크 왕가 문화가 고스란히 존재함

<체코>

□ 요약

- 언어 : 체코어 / 면적 : 약 788만ha(세계 118위)
- 수도 : 프라하 / 인구 : 약 1,049만명(세계 88위) / 화폐단위 : 체코 코루나
- GDP : 2,823억 4,085만 달러(세계 46위) / 1인당 국내총생산 2만 6,378달러(세계33위)
- 종교 : 무교(34.5%), 가톨릭(10.4%), 개신교(1.1%), 기타(54%)
- 인물 : 드보르자크, 스메타나, 프란츠카프카, 밀란쿤데라
- 특징 : 1968년 1월 공산당 제1서기로 선출된 덩체크(Alexander Dubček) 주도의 개혁파가 ‘프라하의 봄’ 개혁운동을 추진했으나, 사회주의 블록의 결속을 내세우던 소련을 포함한 바르샤바조약기구의 군사침공으로 좌절. 1993년 1월 1일을 기해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 체코에는 수도인 프라하 역사지구를 비롯해 모두 12개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

<헝가리>

□ 일반현황

- 언어 : 헝가리어 / 면적 : 약 930만ha(세계 118위)
- 수도 : 부다페스트 / 인구 : 약 1,015만명(세계 110위) / 화폐단위 : 헝가리 포린트
- GDP : 1,822억 8,052만 달러(세계 54위) / 1인당 국내총생산 1만 8,772.67달러(세계41위)
- 종교 : 카톨릭(37.2%), 개신교(13.8%), 그리스정교(1.8%)
- 인물 : 페렌츠 푸스카스, 로버트 카파, 조지 셀, 라홀로 모호이너지,
- 특징 : 헝가리는 다민족국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역사적으로 동서양의 다양한 음식이 조화를 이룸. 수도 부다페스트는 13세기 후반에 건설된 부다왕궁과 헝가리국립박물관, 세체니 다리, 에스테르곰 대성당(Esztergom Basilica) 등과 약 100여 개의 온천이 있음.

1 작지만 강한 대표 강소국

- 인구 911만의 작은 국가이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높은 생활 수준 유지
- 화학, 물리학, 의학 등 기초 과학 부문에 강점
 - 총 15명(생리학 6, 화학 5, 물리학 4)의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 배출
- 독일의 위탁생산 및 R&D 거점: 독일 글로벌 기업 1차 벤더 다수 (수출 비중 높음)
-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히든챔피언과의 협력 수요 높음
 - 중소기업 비중이 전체 기업의 99.6%(기업 수), 63.1%(매출액), 67.1%(고용)를 차지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강소기업 다수 보유(히든챔피언/Weltmeister 약 250개 사, Magna Steyr(자동차), VoestAlpine(철강), Andritz(수력터빈), Palfinger(건설기계) 등)
 - 자동차, 환경, 플라스틱 등 주요 산업별로 다수의 클러스터(Cluster)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음
- 동·서유럽 간 밸류체인을 연결하는 역할
 - 동유럽 원자재를 수입해 고부가가치 중간재 생산, 서유럽 글로벌 기업에 수출(사례: ZKW(헤드램프), KTM(오토바이), Engel(사출성형기), Rosenbauer(소방차) 등)
 - 동유럽의 관문에 위치, 항공·육상 물로 허브로 역할
- 신재생에너지 분야 선도시장

-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소비 기준 36.5%('20년 기준), EU 내 선도국 위치(바이오 매스 40.2%, 수력 31.0%, 목재 13.9%, 풍력 5.4%, 태양력 1.6% 등, '21년 기준)

※ EU 평균 신재생에너지 비중: 에너지 소비 기준 22.1%('20년)

※ 오스트리아, '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100% 달성 목표(생산 기준)

2 오스트리아 주요경제지표

- (경제성장률) 경기침체 지속, '23년 0.3~0.5% 저성장 전망
 - 2분기부터 약한 성장세와 함께 더딘 회복 기대되나,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인플레이션의 경제 성장 저해로 스태그플레이션 불가피
 - 수출 및 고정 투자 침체, 미약하나마 민간소비가 경제활력 부여 전망
- (교역) '23년 수출 전년 대비 2.0%, 수입 2.1% 증가 예상
 - 상반기 경기 회복 및 산업부문 호조로 '22년 수출 11.1%, 수입 5.7% 성장
 - 주요 교역 상대국의 경기침체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23년 수출 전망 비관적
- (민간 소비) '22년 4.1%에 이어 '23년 1.3% 증가 전망
 - 높은 물가상승률에도 저축률 하락 및 정부 물가안정 지원책의 여파로 '22년 4.1% 증가
 - '23년, 재정부 예산 증가(+6.3%)를 통한 노동시장 안정화 및 임금 인상 지원, 저축률 하향 유지 전망으로 민간 소비 1.3% 증가 예상
- (고용) 안정적 노동시장, 팬데믹 이전 근로시간 유지

- 연말 경기침체에도 '22년 실업률, 팬데믹 이전 수준인 6.3%로 마감
- '22년부터 지속된 기업 채용 여력으로 '23년 연간 실업률 6.4% 전망

3 오스트리아 체류 참고사항

□ 현지 체류 참고사항

- 비자
 - 비자 협정에 의해 관광객(90일 이내 체류)는 비자 면제
 - 장기 체류(취업 및 유학)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 또는 제3국에서 비자를 신청해 발급 받아야 함
 - 무비자로 입국한 후 사정에 의해 장기 체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체류 허가 신청 가능
 - 비자 연장(이미 허가된 체류 기간을 연장)의 경우 늦어도 비자 만료 4주 전 연장 신청 권장함
- 출입국 절차
 - 출입국 시 특별한 절차는 없으며 입국 시 신고 필수품이 있을 경우에 자진해서 세관 검사대를 거치며, 그 외로는 세관 검사 없이 통관, 단 세관원이 임의적으로 선택해 세관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품 샘플 등의 경우 확실히 표시해야 함

1

유럽대륙 정중앙, 역사·문화·자연의 다양한 매력보유

- 유럽의 중심에 위치하는 체코는 역사와 문화, 자연의 아름다움이 풍부한 나라(평지가 산악지대보다 많고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에 둘러싸인 내륙국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놀라울 정도로 많아 문화 및 역사적 중요성이 높은 나라.
- 민족 구성은 체코인 64.3%, 모라비아인 5.0%, 슬로바키아인 1.4% 등으로 방언 차이가 있으나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모두 체코어로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로 손꼽히고 있음. 체코슬로바키아가 두 나라로 분리되면서 체코에 남은 슬로바키아인은 전체의 2%를 차지함. 이외의 소수 민족으로 폴란드인, 독일인, 로마인, 헝가리인, 우크라이나인이 살고 있음
- 간략한 역사를 살펴보면 약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 민족 대이동기에 슬라브인 정착을 시작으로 7세기 초 슬라브 부족 국가인 SAMO 제국이 성립되었음. 9세기 초 대모라비아 제국이 성립함(체코 족과 슬로바키아 족이 결합된 초기국가 형태). 870년부터 1306년 프르제미슬 왕조가 성립 체코 국가가 탄생했으며 프라하가 왕국의 수도가 됨. 1310~1378년 룩셈부르크 왕조시기로 체코 역사의 황금기가 펼쳐짐. 1355년 까렐 4세의 신성로마제국 황제 즉위로 프라하가 제국의 중심으로 등장
- 1526~1867년은 합스부르크 왕조 시기로 보헤미아 왕국은 합스부르크가의 통치하에 오스트리아제국의 1개 주로 편입. 1840년 파리혁명의 영향으로 체코 및 슬로바키아 민족운동이 전개됨. 1867~1918년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지배 시기로 1914~1918년

당시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마사리, 베네쉬, 슈테파닉 등에 의한 체코슬로바키아 독립운동이 전개됨. 1918년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이 선포되고 초대 대통령으로 타마쉬 마사리가 선출.

- 139~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 합병 이후 41년 임시정부 수립과 1945년 소련군에 의한 체코슬로바키아 해방 및 제3공화국이 성립함. 이후 공산주의 시기를 거쳐 1989년 벨벳혁명을 통한 자유민주정부가 탄생하고 하벨 대통령이 선출됨.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 연방이 해체되고 체코공화국인 탄생함. 2023년 3월 파벨 대통령 취임.

2 체코의 주요 경제지표

- 소득은 1인당 명목 GDP 28,095달러, 구매력평가기준 인당 GDP 48,919 달러로 중동부 유럽 최고, 일부 서유럽 국가보다 높은 수준(IMF '22년 기준). IMF와 EBRD는 이미 체코를 선진국 그룹으로 분류 중
- 체코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당시 제국전체의 산업기지로서 체코지역의 산업생산이 전체 70%를 차지하는 등 오랜 제조업 전통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 총생산에서 제조업 등 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이며, 주로 자동차, 광업, 화학, 식가공, 에너지, 토목, 소비산업 등으로 구성
-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3%로 아일랜드에 이어 유럽내 2위
 - 자동차, 전동차, 터빈, 항공기(경비행기, 고등훈련기, 헬기), 농기계, 무기류 등 자체 제조
- 특히 자동차는 유럽내 4위 생산국으로 연간 130만대 내외 생산 및 이 중 90% 이상을 유럽 전역, 중국, 인도, 베트남 등지로 수출 중

- 스코다, 도요타, 현대차 등 완성차 생산 공장 및 9백여개 부품사 보유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비중: GV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체코 제조업의 18%,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0.3%와 6.5% ('21년 기준)
- ('22년) GDP성장률 2.4%로 전년(3.5%) 대비 소폭 하락, 러·우 사태, 에너지 위기에 따른 고물가 (전년比 15.1% ↑)
 - 반면 낮은 실업률 유지, 높은 현지화(CZK)가치 유지하며 경제 안정성 유지
 - '22년 3·4분기 실질GDP 증가율이 2분기 연속 감소하며($\Delta 0.3 \rightarrow \Delta 0.4$), 기술적 침체(Technical Recession)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
- ('23년) '22년부터 이어진 침체국면 지속으로 $\Delta 0.5\%$ 의 마이너스 성장 예상
 - 유럽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러우 사태장기화,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한 따른 고금리, 고환율 유지정책으로* 가계소비 위축, 기업투자 둔화 전망
 -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 완화, '24년에는 2~4% 성장세 기록하며 회복 기대
 - 한편, 자동차산업이 주도하는 체코경제는 대외수요 감소, 공급망 불안 및 EU 탄소중립 가속화에 따른 전통 제조업 위축 * 등이 외생적 리스크로 작용
- (실업률) 체코의 2021년 실업률은 2.8%로 EU 회원국 중 최저치였으며, 프라하를 포함한 대도시는 실업률이 1%대까지 내려가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

□ 출입국

- 한국-체코 간 비자 면제협정('94 발효)에 따라 한국인은 체코 내 90일 이하 단기체류 시 무비자 체류 가능. 무비자 단기체류는 단순방문만 해당하며 만약 무비자로 체류하면서 90일마다 제3국을 다녀오는 행위를 반복하다 적발되면 비자 취득 의무 편법으로 회피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이익 가능

□ 환전

- 유로 미사용, 2023년 4월 12일 기준, 체코중앙은행 고시 체코 코루나 환율은 21.439 CZK/USD, 23.420 CZK/EUR이며 유로보다는 코루나로 구매하는 것이 더 유리함
- 호텔 및 대부분의 상점에서 국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일부 환전소는 환율을 좋게 고시하는 대신 고율의 커미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 필요. 환전 시에는 필요한 만큼만 환전(체코 코루나는 100% 태환성이 있기 때문에 암시장이 없으며, 시내에서 환전을 권하는 사람은 대부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

□ 대중교통

- 택시: 대부분 콜택시로 운영되며, 필요시 호텔 프론트에 요청해서 일반택시를 부를 수 있고, 호텔 앞 대기택시는 요금이 비싼 편. 시내 중심가에 대기 중인 택시는 거의 과다 요금을 부과해 가능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할 경우 기사와 금액을 사전 합의 또는 공유 택시 이용
- 대중교통: 프라하 시내 버스, 트램, 지하철은 한 장의 티켓으로 이용 가능. 승차권은 각 대중교통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판매기, 지하철 매표소, 신문판매소(Tabak) 또는 일부 미니마켓 등에

서 구매 가능, 승차권 구매 후 대중교통 이용 시 개찰기를 통해 개찰을 해 사용 시작(최초 사용) 시간이 승차권에 표시되어야만 유효한 승차권으로 간주 (승차권 구입 후 개찰되지 않은 경우 무임승차로 간주). 검표원의 불심검문 시 유효한 승차권을 제시해야 하며, 무임승차의 경우 최대 1,500코루나의 벌금 부과, 특히 외국인은 중점 단속 대상

II-3 연수국가연구 - 헝가리

1 동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가

- 헝가리는 인구는 969만명으로 마자르인 92.3%, 집시 5%, 독일계 2% 등으로 구성되며 다수를 이루는 마자르인은 기원전 3,000년 경 불가강과 우랄산맥에 거주하던 피노-우그리아계통으로 추정됨. 9세기말 아틸라 왕의 후손인 아르파드의 세력들이 헝가리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정착하여 국가를 세웠음.
- 헝가리는 13세기 몽고의 침략으로 큰 손해를 입었으며, 14~15세기 마차슈 대왕의 강력한 리더쉽하에 중부유럽의 강대국으로 성장, 르네상스 문화의 꽃을 피웠으나 이후 국력이 쇠퇴함. 16세기 슐레이만 휘하의 터키군이 헝가리를 침공, 1541년 이후 터키군은 당시 헝가리 수도 “부다”를 점령함으로써, 국토 대부분이 터키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서부 일부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에게 귀속되었으며, 17세기말 전 헝가리가 합스부르크가의 영향 아래 들어감. 프랑스 혁명 이후 민족 항쟁이 이어졌으나 실패했고, 1867년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간 화해 협정 체결하고 이중군주군의 형태를 유지함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헝가리는 국토의 71%, 인구의 60%를 인접국에 양도하게 되어 유럽의 약소국으로 전락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점령하에 있다가 1949년 이후 소련의 위성국화 되었음. 소련의 체제 붕괴 시기 정치개혁을 통해 1989년 공산통치를 종식시킴. 헝가리 의회는 내각책임제로 전환 및 헝가리 공화국으로 국호를 변경하는 헌법개정 추진(국가의 대표 역할을 하는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 총리에 의해 임명되는 장관과 정부 부처의 관료들로 이루어진 각료회의로 구성)
- 수도는 부다페스트로 헝가리 국회의사당에서부터 성스테판 성당에 이르기까지 다뉴브 강(체코에서는 블타바 강)을 따라 이어지는 정치적, 종교적 유산이 풍부한 곳
- 헝가리의 예술품과 건축물들은 로마네스크, 고딕, 바로크, 아르누보의 영향을 받았음. 수려한 민속 전통을 가진 나라로, 자수, 도자기, 천장화 및 벽화, 나무나 동물 뼈조각 등에 잘 녹아 있음. 음악 작품 또한 풍부해서 프란츠 리스트(Franz Liszt)의 광시곡과 페렌츠 얼켈(Ferenc Erkel)의 오페라에서 집시 및 민속음악에 이르기까지 범위 또한 매우 광범위, 문학은 이 나라 역사에 있어 기념적인 사건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허세 부리는 송가, 자유를 갈망하는 시, 대담한 리얼리즘 이야기, 귀에 거슬리는 논쟁 등이 유명함.

2 헝가리의 주요 경제지표

- 경제성장률: 2022년 7.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23년에는 높은 물가상승률 및 러 우 사태 등으로 인해 0.5~1%대의 낮은 성장 예상, 헝가리는 최근 5년간 자연실업률에 가까운 3~4%대의 낮은 실업률을 보였으며 이에 헝가리 기업들은 심각한 인력난 경험

- 2022년은 2000년 이후 최초로 10%를 초과하는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14.5%), 오르반 총리는 2023년 2월 국정연설에서 헝가리가 마주한 주요 위협 중 하나로 물가상승률을 들었으며 2023년 말까지 물가상승률을 한 자릿수로 낮추겠다고 발표
- 헝가리 현지통화(HUF, 포린트화)의 가치는 크게 변동. 특히 2022년 5월에 1유로당 약 360포린트였던 EUR/HUF 환율이 22년 10월에 1유로당 435포린트까지 치솟으면서 포린트화 가치가 급락하기도 함. 다만 올해는 포린트화 가치가 다소 안정되었으며 지난해의 약세를 극복하고 강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임

3 헝가리 체류 참고사항

□ 출입국

- 한국·헝가리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비영일 목적으로 방문 시 최장 90일간 상호 무비자로 체류 가능. 헝가리는 쉥겐조약 가입국으로 양자 사증면제협정보다 쉥겐조약을 우선적용함으로 인근 쉥겐조약 가입국 방문 시 체류기간에 유의

<쉥겐조약>

유럽 27개국이 여행 및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조약으로, 180일 이내에 가입국을 최장 90일 동안 무비자로 방문 가능

- 가입국 : 벨기에, 룩셈부르크,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이태리, 독일, 네덜란드,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그리스, 스웨덴, 스페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모나코,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헝가리 접경 국가 중 루마니아, 세르비아는 미가입)

* 크로아티아는 2023.1.1.부로 쉥겐조약 가입

- 입국 시 절차가 간단한 편이며 일반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경우에 따라 무작위로 세관검사를 받게될 수 있으므로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서 수화물을 준비해야

함. 규정을 넘어서는 물품(술, 담배 등)의 경우 세관 적발시 압수 당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상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가능하며, 유로화 사용이 가능한 상점도 있으나, 환율을 불리하게 적용해야 하므로 현금 결제 시에는 포린트화 사용을 권장함. 단, 포린트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 바, 소액 환전이 유리함. 환전은 환율을 고려하여 공항보다는 시내 환전소를 권장(여권 필요)
- 헝가리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페스트(구시가) 쪽 시내에는 대중교통만으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음. 부다(왕궁) 쪽은 메트로가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며 언덕이 많아 상대적으로 교통이 덜 발달되어 있으나, 부다페스트 내에서는 대체로 대중교통만으로 이동이 가능함. 일반 택시의 경우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콜택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Ⅲ

연수국 주요 방문기관 및 내용

1

오스트리아 쾨브룬 궁전, 테레지아 옐로우

- 방문일정 : '23. 4. 21.(금) 10:00
- 주 소 : Schoenbrunner Schloßstrasse 47, 1130 Wien
- 홈페이지 : <https://www.schoenbrunn.at/en/>

□ 방문지 소개

- 마리아 테레지아가 사랑한 궁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 별궁인 쾨브룬 궁전은 17세기말 레오폴드 1세 황장의 명으로 건축가 피셔 폰 에를라흐가 바로크 양식의 장엄한 사냥관으로 개축한 곳.
- 이 곳을 18세기 중순에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의 지시로 니콜라우스 파카시가 확장하고 개장하여 현재의 모습이 되었음. 외관은 바로크 양식, 내부는 로코코 양식으로 1,441개의 방이 있으며 현재 그 중 40개 방만 공개 중임. 쾨브룬 궁전의 상징이기도 한 노란빛 외관은 마리아 테레지아 옐로우로 불리기도 함

- ▶ 합스부르크 왕조의 번영을 보여주는 대궁전과 정원, 원 상태 그대로 보존된 아름다움 방을 투어할 수 있으며, 가장 호화로운 응접실은 나폴레옹 제국 붕괴 이후 개최된 빈 회의에서 무도회장이 된, 길이 40미터, 폭 10미터의 대 회랑이며 모차르트가 여섯 살 적 연주했던 거울의 방도 일품으로 알려져 있음

2

벨베데레 궁전과 클림트

- 방문일정 : '23. 4. 21.(금) 15:00
- 주 소 : Prinz-Eugen-Strasse 27, Vienna 1030 Austria
- 홈페이지 : <https://www.belvedere.at/en>

- 오스트리아 빈 시내에 위치한 매우 높은 문화적 가치를 지닌 명소. 특히 벨베데레 궁전에는 오스트리아의 화가 고스트라브 클림트(Gustav Klimt)의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음.
- 클림트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주요한 심볼리즘 및 아르 누보(Art Nouveau) 예술의 대표적인 화가로서 유명. 그의 작품은 주로 금색과 다채로운 패턴, 섬세한 선으로 특징지어져 있으며, 여성의 아름다움과 심리적 풍경을 주제로 함.
- 벨베데레 궁전의 클림트 컬렉션에는 특히 유명한 작품으로는 “젊은 여인들(Die Jungen Damen)” 시리즈가 있으며 “키스(The Kiss)”나 “더 트리(The Tree of Life)”와 같은 작품들이 있음
- 클림트의 작품은 그의 독특한 스타일과 특색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벨베데레 궁전의 클림트 컬렉션은 그의 예술적 유산을 관람객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장소 중 하나.
- 클림트의 작품과 함께 프랑스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있는 작품이 함께 전시되어 있음

▶ 벨베데레 궁전은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문화유산 보존과 현대적 활용의 좋은 사례로 평가 받고 있음. 궁전의 건축적, 역사적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보존 작업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오스트리아 역사와 문화를 후세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

▶ 오스트리아의 정치적, 군사적 역사, 그리고 예술적 발전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 유산으로 현대에도 여전히 예술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중요한 문화적 상징

3

비엔나 전통음식 체험, 립스 오브 비엔나

- 방문일정 : '23. 4. 21.(금) 17:00
- 주 소 : Weihburggasse 22 A-1010 Vienna, Vienna 1010 Austria
- 홈페이지 : <https://www.ribsofvienna.at/>

- 립스 오브 비엔나(Ribs of Vienna)는 비엔나의 전통적인 분위기와 맛을 경험할 수 있는 레스토랑으로 유명. 이곳은 특히 다양한 스타일의 립과 고기 요리로 잘 알려져 있음. 비엔나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사랑받고 있는 곳
- 식당 내부는 전통적인 비엔나 스타일의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어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랑함. 고풍스러운 나무 테이블과 조명이 아늑한 느낌. 또한, 벽에는 다양한 비엔나의 역사적인 사진들과 예술 작품들이 걸려 있어, 비엔나의 문화와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공간.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즐기기에 좋은 식당임
- 메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립. 입맛에 맞게 구운 립은 육즙이 가득하고, 부드러운 고기 맛이 일품. 바비큐 소스나 다양한 소스와 함께 제공되어 맛의 조화가 훌륭함. 립 외에도 다양한 전통적인 오스트리아 요리들이 많음. 예를 들어, 비엔나의 유명한 슈니첼(schnitzel)이나 다양한 고기 요리들이 있으며. 사이드 메뉴로는 신선한 샐러드와 다양한 전통적인 감자 요리들이 제공되며, 이들도 다채로운 맛을 자랑하고 있음.
- 서비스도 매우 친절하고 세심함. 웨이터들은 음식에 대한 추천을 잘 해주며, 필요한 모든 것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 가격은 약간 높은 편이지만, 그만큼 음식의 질과 서비스가 뛰어나므로 가성비는 좋다고 평가됨. 전체적으로 립스 오브 비엔나는 오스트리아의 전통적인 맛과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는 멋진 레스토랑으로 비엔나를 방문하면 한 번쯤 들러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

□ 방문 사진



립스 오브 비엔나 거리 메뉴판



립스 오브 비엔나 대표메뉴



립스 오브 비엔나 대표메뉴



관계자 단체사진

4

패밀리 퀘르펠트社와 카페 란트만

- 방문일정 : '23. 4. 22.(토) 10:00
- 주 소 : Querfelds Wiener Kaffeehaus GmbH Universitätsring 4
1010 Wien
- 홈페이지 : <https://www.cafe-wien.at>

- 패밀리 퀘르펠트는 오스트리아의 호텔 및 레스토랑 그룹으로 퀘르펠트 가족은 18세기부터 호텔업을 시작해 현재도 호텔, 레스토랑, 카페 등 다양한 업태를 운영하고 있음. 특히 오스트리아 주요 관광지에서 호텔과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전통적인 오스트리아 스타일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 Family Querfeld의 카페 란트만은 오스트리아의 빈에 위치한 역사적인 카페로서, 오스트리아의 문화적 유산의 일부. 카페 란트만은 1873년에 창업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빈의 우아한 카페 문화의 중심지 중 하나.
- 카페 란트만은 창업 이후 수십 년 동안 빈의 예술가, 문인, 정치가, 철학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장소로 유명. 이곳은 오스트리아의 희망과 문화, 아이디어를 나누는 중요한 장소로서 역할.
- 카페 란트만은 오스트리아의 역사적인 사건에도 중요한 역할. 예를 들어, 제1차 세계 대전 당시에는 여러 중요한 정치적 결정과 회담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으며, 오스트리아의 문화적인 혁신과 발전에 기여.
- 오늘날에도 카페 란트만은 빈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의 전통적인 카페 문화와 유럽 카페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음. 방문객들은 오스트리아의 커피와 케이크를 즐기며 역사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오스트리아의 자부심이자 문화 유산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전북지역의 커피, 전통차, 과자 등의 지역 고유의 음료와 디저트를 활용, 지역문화와 건축물 등 특별한 공간과 결합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전북의 특징적인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

□ 방문 사진



카페 란트만 외부사진



카페란트만 입장대기 사진



카페 란트만 메뉴사진



카페란트만 단체사진

5

오스트리아 의회(Demokratikum)

- 방문일정 : '23. 4. 22.(토) 11:00
- 주 소 : Dr.-Karl-Renner-Ring 3 1017 Vienna
- 홈페이지 : <https://www.parlament.gv.at/en>

- 1,500m² 면적의 콜로네이드 홀 바로 아래에 위치한 방문객 센터 " 데모크라티쿰 - 의회 체험"은 방문객들이 의회주의에 대해 배우고 오스트리아 의회의 풍부한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곳.
- 초등학생부터 학생, 가족,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과 교육 수준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 의회 체험관은 정치, 역사, 건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체험 중심의 접근 방식을 통해 이러한 주제에 몰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필.
- 27개의 인터랙티브 미디어 스테이션에서 사실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의회와 그 과정을 소개. 모든 콘텐츠는 독일어와 영어로 제공.
- 의회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은 사전에 방문 등록. 이름을 등록하면 개별 QR 코드가 전송. 도착 시 입구에서 이 코드를 사진이 부착된 공식 신분증과 함께 제시.
- 사전 온라인 등록이 불가능할 경우, 입구 데스크에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스캔하여 입장하실 수도 있음. 이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 국회의사당에 입장하기 전에 보안 검색을 실시.

□ 방문 사진



오스트리아 의회 내부



오스트리아 의회 내부

- 방문일정 : '23. 4. 22.(토) 14:00
- 주 소 : Universitätsstrasse 5/4. Stock/12 1010 Vienna
- 홈페이지 : <https://www.unesco.at>

- 오스트리아 유네스코 위원회(UNESCO National Commission of Austria)는 유네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의 국가 차원에서 활동하는 공식 기관. 유네스코는 전 세계적으로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 국제 협력과 지원을 통해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국제 기구로, 각국은 자국의 유네스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국가위원회를 두고 있음. 오스트리아 유네스코 위원회는 이러한 국제적 역할을 오스트리아 내부에서 조정하고 추진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음.

1. 주요 역할

유네스코의 프로그램과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시행: 유네스코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오스트리아 내에서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국가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하는 역할.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목록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국가적 대응: 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세계 지질공원 등 다양한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담당. 오스트리아는 여러 중요한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교육, 과학, 문화 분야의 협력 촉진: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연구하는 기관으로, 오스트리아 위원회는 이런 분야에서 오스트리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국제적인 프로젝트에 참여.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협력: 유네스코와 다른 국가들, 그리고 지

역 기관들과 협력하며, 국제적인 문화 교류와 과학적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오스트리아의 문화와 과학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음.

2. 주요 활동

세계유산 보호: 오스트리아에는 쾨브룬 궁전, 비엔나 역사 중심지, 할슈타트와 같은 중요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있음. 오스트리아 유네스코 위원회는 이들 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무형문화유산: 오스트리아는 전통적인 음악, 춤, 연극 등의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오스트리아의 전통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

과학적 연구와 혁신: 유네스코는 과학적 연구와 혁신을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 오스트리아 유네스코 위원회는 오스트리아가 국제적인 과학적 협력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적 해결책을 제시

교육과 평화 촉진: 오스트리아는 교육을 통한 평화 구축에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유네스코의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는 국제 교육, 인권 교육,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이 포함됨.

3. 구조

오스트리아 유네스코 위원회는 정부, 학계, 문화 기관 등 다양한 단체와 협력하여 구성. 위원회의 구조는 유네스코의 국제적인 목표에 부합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활동에 대한 자문과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들로 이루어져 있음.

위원장: 위원회의 상위 직책으로, 위원회의 전체적인 방향과 정책을 결정하고, 국제 유네스코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

전문가 및 자문위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정책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실제적인 조치를 제안.

행정적 지원팀: 일상적인 운영과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존재.

4. 연락처 및 활동

오스트리아 유네스코 위원회는 비엔나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그 외에도 유네스코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있음. 그들은 유네스코의 다양한 목표와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이를 통해 국가와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5. 오스트리아의 유네스코 프로그램

세계유산: 오스트리아에는 많은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음. 이러한 유산들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지속 가능한 발전: 유네스코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에 참여하며, 환경, 경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기여.

6. 오스트리아의 유네스코 참여

오스트리아는 유네스코의 창립 멤버국 중 하나로, 창립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또한, 오스트리아는 국제적인 문화 행사와 과학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네스코의 교육 프로그램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음.

오스트리아 유네스코 위원회는 국가의 문화와 역사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인 협력과 평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 세계유산목록 등재 12건, 잠정목록 10건 등 다양한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발굴, 관리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유네스코 부의장국으로 활동 중인 오스트리아 유네스코 위원회의 다양한 활동 현황 청취
- ▶ 오스트리아 유네스코 지정·관리 및 발굴 정책 관련, 오스트리아 전통건축물과 경관지구 등에 대한 관리활용 현황, 오스트리아 식문화 등 전통문화유산의 전통유지관리 정책(규제 또는 장려 정책) 논의

□ 방문 사진



유네스코 위원회 내부 - 단체사진



유네스코 위원회 외부 - 단체사진

- 방문일정 : '23. 4. 23.(일) 11:00
- 주 소 : Gosaumühlstraße 67, 4830 Hallstatt, 오스트리아
- 홈페이지 : <https://www.museum-hallstatt.at/>

- 할슈타트(Hallstatt)**는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이지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중요한 문화유산. 이곳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적인 유적 중 하나로, 특히 고대 할슈타트 문화와 관련된 중요한 유산을 보유하고 있음. 할슈타트는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그 보존과 관리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
- 할슈타트는 기원전 12세기부터 기원전 1세기까지 존재한 할슈타트 문화의 중심지로, 이는 중유럽 철기 시대의 문화로 알려져 있음. 할슈타트의 역사적 중요성은 이 지역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유적, 특히 철기 시대의 유물과 고분들로 입증. 이 외에도, 할슈타트는 알프스 산맥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전통적인 목조 건축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 자연과 문화유산이 조화를 이루는 대표적인 지역.
- 할슈타트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면서, 그 보존과 관리가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받게 되었음. 이 지역의 보존과 관리는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음.
- 할슈타트의 고고학적 유산과 전통 건축물들은 매우 중요한 자산. 이에 따라, 고대 유적지와 건축물들은 철저히 보호되고 관리. 예를 들어, 할슈타트의 유명한 고대 묘지(고분지대)와 염호 지역(염소채굴 유적)은 철저한 고고학적 발굴과 연구를 통해 보존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도 현대적 개발로부터 보호받고 있음

고고학적 발굴: 할슈타트에서 발굴된 다양한 유물들은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 유물들은 보존 상

태가 좋은 박물관에 전시되거나, 디지털화되어 전 세계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

건축물 보존: 할슈타트의 전통적인 목조 건물들은 특별히 보호되고 있으며, 재건축이나 개조 시에는 전통적인 건축 방법과 재료를 사용하여 원형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할슈타트는 할슈타트 호수와 알프스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경관이 매우 아름답고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지역. 이 지역은 자연 환경과 문화유산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경관의 보존 역시 매우 중요.

환경 보호: 할슈타트 지역은 고유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자연 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예를 들어, 호수와 주변 산의 환경을 오염되지 않게 유지하려는 노력, 토양 침식 방지와 같은 생태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관광 관리: 할슈타트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관광이 과도하게 발전하면 유산 보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객 수를 제한하거나 환경 친화적인 관광 정책을 도입하여, 관광과 보존의 균형을 맞추고 있음.

- 할슈타트는 전 세계에서 문화유산 보존의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특히 관광업과 문화유산의 균형을 맞추는 데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음.

디지털 보존: 할슈타트는 고대 유적을 디지털화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물이나 유적지가 손상되거나 파괴되는 경우에도, 디지털 자료를 통해 역사적 가치를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음.

현대적 개발과의 균형: 할슈타트의 주변 환경이나 새로운 건축물 개발은 철저한 규제와 계획에 따라 이루어짐. 이를 통해 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 할슈타트는 그 자체로 문화유산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이 지역은 고대와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보존과 관리는 지속적으로 진행.
- ▶ 지역 사회와의 협력, 환경 보호,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 등 여러 측면에서의 노력 덕분에 할슈타트는 그 고유한 가치를 잘 보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움과 역사적 가치를 전달.

□ 방문 사진

	
<p>할슈타트 전통가옥</p>	<p>할슈타트 목공 기념품 상점 내부</p>
	
<p>할슈타트 노천카페</p>	<p>관계자 단체사진</p>

- 방문일정 : '23. 4. 23.(일) 15:00
- 주 소 : Getreidegasse, 5020 Salzburg, 오스트리아
- 홈페이지 :

○ 게트라이드가세(Gaugedergasse)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위치한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거리를 말하며, 전통 경관과 고건축을 활용한 관광 마케팅의 좋은 사례로 손꼽힘. 이 거리와 주변 지역은 오스트리아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관광객들에게 고유한 역사적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대적인 관광 마케팅 전략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있음. 게트라이드가세와 같은 지역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로, 관광 마케팅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게트라이드가세의 역사적 배경

게트라이드가세는 비엔나의 구시가지에 위치한 전통적인 거리로, 이곳은 중세 시대의 건축물들이 잘 보존된 곳. 거리의 이름은 '게트(게하)와 '가세(가)'의 결합으로, 비엔나 구시가지의 역사적인 일부로, 오스트리아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과 거주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음.

고대 건축물: 거리 주변에는 17세기, 18세기 건축물들이 많이 있으며, 이들 건축물은 오스트리아의 바로크, 고딕, 르네상스 시대의 전통적 건축 양식을 잘 보여줌. 벽돌과 돌을 사용한 건축물들은 당시 비엔나 귀족들의 거주지와 상점들이 있던 곳으로, 여전히 그 당시의 고풍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음.

역사적 거리: 이 지역은 오래된 상업 중심지로서, 비엔나의 상류층이 거주하고 상업 활동을 하던 중요한 중심지. 이 때문에 거리와 건축물들은 단순히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사회와 경제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 전통 경관과 고건축을 활용한 관광 마케팅

게트라이드가세는 전통 경관과 고건축을 효과적으로 관광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음. 이 지역은 그 자체로도 매력적인 관광지일 뿐만 아니라, 여러 관광 마케팅 전략을 통해 전통과 현대를 잇는 새로운 관광지를 만들어 가고 있음. 게트라이드가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오스트리아 전통 건축의 보존과 그 역사적 가치. 관광 마케팅에서 이 점을 강조하여, 전통적인 건축물을 단순히 '구경하는' 차원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역사적 공간"으로 만드는 데 집중

○ 현대적인 요소와 결합된 마케팅 전략

전통적인 경관과 고건축을 현대적인 요소와 결합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마케팅 전략도 중요. 게트라이드가세는 "과거와 현재의 조화"를 강조하여 현대적인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분위기를 유지.

○ 디지털 마케팅과 홍보

디지털 마케팅의 시대에 맞춰, 게트라이드가세는 온라인을 통한 관광 마케팅에도 집중. 관광객들은 사전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게트라이드가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방문을 유도.

○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 : 게트라이드가세는 역사적인 건축물과 전통 경관을 보존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관광을 추구. 이 지역은 친환경적인 관광 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이 지역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관리.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고, 도보 중심의 관광을 강조함으로써, 관광객들이 거리를 편안하게 걷고 지역의 전통을 더 잘 경험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인 자전거나 전기 스쿠터 등을 이용한 투어도 인기 있는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음.

▶ 게트라이드가세는 전통 경관과 고건축을 활용한 관광 마케팅의 우수한 사례로, 역사적 유산과 현대적 필요를 균형 있게 결합한 관광지. 이곳은 고

풍스러운 건축물과 함께, 그 시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동시에 현대적인 편리함과 서비스를 갖춘 상업 공간으로 재탄생.

▶ 게트라이드가세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관광 마케팅 전략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문화유산 보존과 현대 관광의 조화를 잘 이룬 대표적인 지역.

▶ 유명한 생가 보전 및 인근에 관련 콘텐츠를 활용한 먹거리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점 등 역사와 전통, 고유성을 간직하고 있는 전북지역에 게트라이드 가세의 건축물, 간판, 스트리트퍼니처 등을 활용한 “고유경관의 유지, 관리, 활용방안” 을 벤치마킹하여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방문 사진



게트라이드가세 상점표지판



게트라이드가세 상점표지판



게트라이드가세 상점표지판



게트라이드가세 상점표지판

□ 방문 사진



게트라이트가세 노천카페



게트라이트가세 길거리음식점



모차르트 생가



모차르트 생가 입구

9

체스키크룸로프와 체코 전통 식문화 체험

- 방문일정 : '23. 4. 24.(월) 12:00
- 주 소 : náměstí Svornosti 2, CZ - 38101 Český Krumlov
- 홈페이지 : <https://www.ckrumlov.info/en/cesky-krumlov/>

- 체코 체스키크룸로프(Cesky Krumlov)는 체코 공화국 남부에 위치한 중세 도시로, 그 역사적 가치와 독특한 아름다움 덕분에 199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 이 도시는 체코 중세 건축의 대표적인 예시로, 체스키크룸로프 성을 중심으로 한 고풍스러운 거리가 특징적. 특히 이곳의 전통 음식 문화는 체코의 농업과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풍부한 전통을 자랑.
- 체스키크룸로프는 단순히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적인 건축물로 유명한 곳만이 아니라, 그 지역 특유의 음식 문화로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 체스키크룸로프의 전통 음식은 체코 전통 요리와 술의 고향으로서 그 역사와 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음.
- 체스키크룸로프는 중세부터 중요한 상업적, 문화적 중심지였으며, 체코 왕국의 일부로서 지역적인 특색이 강한 도시. 이 지역의 전통 음식은 체코 농업과 자연환경에서 유래한 재료들을 많이 사용하여, 질 좋은 고기, 신선한 채소, 그리고 구수한 맥주 등이 주로 등장.
- 지리적 특성: 체스키크룸로프는 바이에른과 오스트리아와의 근접성 덕분에 여러 문화가 섞인 요리들이 존재. 특히 독일식과 오스트리아식 음식 문화가 반영되어, 체코 전통 음식에 다양한 변형이 나타남.
- 체스키크룸로프는 역사적인 도시로서, 관광객들에게 그 지역의 고유한 전통을 음식 문화를 통해 전달하고 있음. 이 지역의 음식 문화는 단순한 요리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전통적인 체코식 요리와 문화적 경험이 결합된 관광 활동으로 활용되고 있음.

○ 체스키크롬로프에서는 전통 음식과 음료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음식 투어가 인기. 이 투어는 체코 전통의 음식을 먹으면서 도시의 역사적 명소들을 함께 돌아보는 형태로 진행. 예를 들어, 고성 주변의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전통적인 체코 음식을 맛볼 수 있음

▶ 체스키크롬로프는 단순히 아름다운 중세 도시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음식 문화도 깊이 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 체코 전통 음식과 음료는 이 지역의 문화와 정서를 잘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로, 체스키크롬로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그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더욱 강조하는 역할

▶ 고유한 전통 음식 문화를 바탕으로 체스키크롬로프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체코의 음식 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

□ 방문 사진

	
<p>체코 전통 음식(후식)</p>	<p>체코 전통 음식-콜레노(Vepřové koleno)</p>
	
<p>체코 전통 음식</p>	<p>관계자 단체 사진</p>

- 방문일정 : '23. 4. 25.(화) 15:00
- 주 소 : Žatecká 110/2, 110 00 Praha 1 - Staré Město
- 홈페이지 : <https://www.praguecitytourism.cz>

- 프라하는 풍부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시로, 이러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할 필요성이 대두. 이를 위해 시 차원의 별도 조직을 설립하여 관광 프로모션을 전담. 프라하 관광청의 본부는 구시가지의 마리엔 광장에 위치한 신 시청에 있으며, 뉴타운의 Jungmann Street에 있는 Skoda Palace에서도 일부 업무를 수행
- 주요 조직 및 업무:
 - 관광 명소 관리: 프라하의 주요 관광 명소를 관리하고, 방문객들에게 양질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예를 들어, 페트린 전망대와 같은 인기 있는 관광지를 관리하며, 이러한 명소의 방문객 수를 모니터링.
 - 홍보 및 마케팅: 프라하의 관광 자원을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 이를 통해 프라하를 전 세계 여행객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로 알리고자 하고 있음.
 - 관광 인프라 개발: 프라하의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방문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예를 들어, 프라하 비지터 패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 전역의 명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협력 및 파트너십: 바츨라프 하벨 공항 및 체코 관광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프라하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산업의 성장을 도모. 특히, 장거리 항공편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어 글로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방문 사진



프라하 관광청 내부



프라하 관광청 관계자 면담



프라하 관광청 관계자 면담



프라하 관광청 외부-관계자 단체사진

11 부다페스트: 뉴욕카페, 전통을 유지하는 세계적 명소

- 방문일정 : '23. 4. 26.(수) 15:00
- 주 소 : Žatecká 110/2, 110 00 Praha 1 - Staré Město
- 홈페이지 : <https://www.praguecitytourism.cz>

- 뉴욕카페는 1894년 미국에 본사를 둔 뉴욕보험회사 헝가리 지사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한 건물로 당시 부다페스트에만 500개가 넘는 커피하우스가 있었고, 건물 1층에 뉴욕카페가 자리함. 다양한 조각품과 샵드리에, 원형기둥, 바로크양식의 아치 등 최고급 자재를 이용한 화려한 내외부장식이 특징으로 현재까지도 당시의 모습을 보전하고 있음. 뉴욕카페(New York Cafe)는 단순한 카페 이상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명소입니다.
- 개장 이래로 뉴욕카페는 문학가, 예술가, 지식인들이 자주 찾는 장소로 알려지면서, 헝가리 뿐 아니라 유럽 전역의 문화 예술 교류의 중요한 장소로 발전. 뉴욕카페는 르네상스 및 바로크 양식의 건축미를 자랑. 내부는 섬세한 프레스코화, 정교한 샵드리에, 고풍스러운 가구 등으로 꾸며져 있어 방문객들에게 마치 한 폭의 예술작품 속에 들어온 듯한 인상. 이러한 화려한 인테리어와 건축미는 뉴욕카페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부다페스트의 역사와 예술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게 하는 요소.
- 뉴욕카페는 부다페스트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필수 코스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음. 역사적 배경과 독특한 인테리어는 사진 촬영, 문화 체험, 그리고 특별한 다과 시간을 즐기려는 여행객들에게 큰 매력을 제공.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넘어서, 뉴욕카페는 헝가리의 풍부한 문화와 예술, 역사적 이야기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방문객들이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분위기 속에서 특별한 경험
- 결론적으로, 뉴욕카페는 부다페스트의 화려한 역사와 문화, 예술이 깃든 상징적 공간으로, 방문객들에게 단순한 카페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며 헝가리 관광의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

□ 방문 사진



뉴욕카페 외부



뉴욕카페 외부



뉴욕카페 내부



뉴욕카페 내부



뉴욕카페 커피와 다과



뉴욕카페 커피와 다과

- 방문일정 : '23. 4. 27.(목) 10:00
- 주 소 : Žatecká 110/2, 110 00 Praha 1 - Staré Město
- 홈페이지 : <https://www.praguecitytourism.cz>

- 1977년에 국가기념물로 지정된 이 건물은 헝가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벽돌 건축물 중 하나로 손꼽히는 그레이트 마켓 홀은 1897년에 지어진 부다페스트에 남아있는 가장 큰 재래시장
-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대표적 관광 명소 중 하나인 그레이트 마켓 홀은 단순한 전통 시장 이상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그레이트 마켓홀은 19세기 말에 건립되어, 부다페스트의 번영하는 상업 활동과 도시 발전의 산 증거. 당시의 건축 양식과 내부 구조는 부다페스트가 겪은 산업혁명 및 도시 근대화 과정을 엿볼 수 있게 함.
- 독특한 건축 디자인: 전통적인 외관과 내부의 넓은 공간 구성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적 유산이자 건축미의 예로 평가받으며, 많은 방문객들이 이곳에서 과거의 멋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음.
- 그레이트 마켓홀은 헝가리 특유의 식재료와 전통 음식, 수공예품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장소. 이곳에서 판매되는 각종 향신료, 육류, 치즈, 빵 등은 헝가리의 다채로운 식문화를 대표하며, 방문객들에게 현지의 맛과 멋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현지 상인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전통 요리 체험 행사, 그리고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통해 방문객들은 부다페스트의 생활 문화를 몸소 느낄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쇼핑을 넘어 문화 체험으로 확장.
-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그레이트 마켓홀은 과거의 전통적 시장 분위기와 현대 관광객들의 편의를 모두 충족시키는 공간으로 탈바꿈. 역사적 건물의 보존과 동시에 현대적인 시설을 도입하여,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관광 명소. 헝가리의 지역 생산자와 소상공인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선보이는 창구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함으로써 지역 사회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헝가리의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

- 결론적으로, 그레이 마켓홀은 부다페스트의 풍부한 역사와 지역 특색을 그대로 간직한 공간으로, 방문객들에게 단순한 쇼핑 이상의 문화 체험과 역사적 이야기를 전달하는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활용

▶ 과거 건축물을 완전히 허물지 않고 원형을 유지한 채 현재의 기능을 더해 독특한 지역문화와 지역분위기를 창출함으로써 지역특색을 만들어 내 이것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사례로, 전북지역의 오래된 건축물을 원형상태로 유지보수하여 현재의 수요에 맞는 기능을 입힌다면 다른 지역에 없는 전북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방문 사진



그레이트 마켓홀 외부



그레이트 마켓홀 내부



그레이트 마켓홀 내 상점



그레이트 마켓홀 내 상점



그레이트 마켓홀 과거사진



그레이트 마켓홀 내부